



광나무

(학명 : *Ligustrum japonicum*, 물푸레나무과)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나무가 한평생 사는동안에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죽어갈까?

너무 유치한 질문 같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는 그들이 한일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끈이지 않고 이어지는 각종 흉악 범죄 사건들의 이야기가 일과처럼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태초부터 나무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땅에 생겨나서 아주 많은 세월 동안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숨쉬며 살아갈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우리를 부드럽게 보듬어서 정말로 심성이 고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무는 원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좋은 숲에서 인류의 문명도 발생되어 찬란하게 빛났고 또 그들의 쇠퇴 속에서 멸망했던 것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던가?

이제 우리가 나무와 숲을 물질로만 보지 않고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 해야할 필연의 시대가 닥아 온것 같다. 조급하며 저돌적인 사람들의 품성은 할수없이 콘크리트 도심속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라고 핑계 말고 자꾸 조금씩 이나마 완화 하는데 보탬되는 작은 숲이

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나름대로 소중하지 않은 나무가 없는데, 그들 쓰임새를 잘 개발해서 유용하게 써 먹어야 하는 것이다.

광나무는 주로 남부지방에 천연분포하며, 중북부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 생소한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떨기나무인 광나무



광나무

를 정목 또는 여정목이라고 부르며 그열매를 여정실(女貞實)이라고 한다.

그 자태가 정절을 지키는 여인네 처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고고하며 푸른자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해안이나 섬지방의 야산에 많이 있는데 키가 5m, 직경 20cm 쯤 자라며, 원줄기에서 가지가 잘나고 생장이 빨라서 수형을 마음대로 조절 할수 있는 나무다.

광나무는 새로나온 가지 끝에서 6-7월에 하얀색 꽃이 온 나무를 덮을 정도로 많이 피서 좋은 밀원 수종이다. 열매는 길이가 7-10mm로 10월에 까맣게 익어 겨울동안 매달려 있는데 마치 쥐똥 같이 생겼다. 나무도 쥐똥나무와 비슷하지만 상록성이고 잎이 사철나무잎 같은데 뒷면에 희미한 잔점이 있는 것이 다르다.

나무중에서 소금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광나무다. 그래서 오래 살고 죽은뒤에도 썩체로 나무가 썩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광나무 열매는 예로부터 늘 장복하게 되면 정기가 증강되고 무병장수 하며, 최근 어떤 임상실험에서는 백혈구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면역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

또한 간과 신장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오고 허리나 무릎 아픈 것이 낫게되며 노인이 오래 장복하면 젊음을 되찾고 여성이 먹으면 몸에서 향기가 나고 피부가 고와진단다.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은 계속되고 우리나라 또한 지난 몇십년 동안에도 뚜렷하게 식물의 분포역이 북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광나무 역시 지금은 경북지역에서도 가로수로 심겨질 정도로 적응지역이 북상했다.

증식은 종자 또는 가지삽목으로 가능하다.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과육에 있는 발아 억제물질을 제거 한다음 그대로 직파하거나 습기 있는 모래와 혼합하여 노천매장후 이듬해 파종하고 삽목은 6-7월에 녹지를 이용하면 발근이 잘 된다.

광나무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심겨졌는데 앞으로 계속되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좀더 북쪽지방에서도 적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조정수나 밀원수종으로 심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사랑 받게 될 것이다.



광나무의 꽃과 잎



새까맣게 익은 광나무 열매